

제22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시 정 질 문

윤 태 천 의원

안녕하십니까?

본오1동, 본오2동, 반월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기획행정위원회
윤태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성준모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시는 전통적으로 공업도시로 인식되어 왔으며, 현재는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의 주요 대도시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최근의 통계인 2013년도말 기준 경기도 통계에 의하면, 농가수에서 1,971가구로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18위에 해당하고, 논과 밭을 합한 경지면적에서도 2,139헥타르로 경기도내 18위에 해당합니다. 어업부문을 보면 동력어선의 톤수에서 함께 731톤으로 경기도내에서 화성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습니다. 이는 우리 시의 농수산업생산량이 결코 적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타 다수의 축산 농가도 있고 염전도 있습니다.

이런 우리 시 농업, 수산업 등의 위상에 비해 우리 시의 지원 행정은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농수축산물 및 특산물에 대한 자체 인증 지역 통합 브랜드제도의 부재에서 우리 시의 소극적인 행정의 단면을 발견합니다.

경기도가 「경기도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경기도의 우수 농특산물임을 인증하는 G마크를 사용하면서부터, 경기도내 각 시군에서 앞 다투어 자기 지역의 농수특산물에 대한 자체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략 20개에 육박하는 시군에서 「통합상표 관리 조례」 등을 제정하여 자기 지역의 우수 농수 특산물을 자체 인증하며 대내외적으로 자랑하고 있습니다. 농업 생산량이 많은 군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시 인근의 화성시도 ‘햇살드리’라는 통합브랜드를 사용하고 있고 공업도시로 알려진 평택시도 ‘슈퍼오닝’이라는 농특산물 통합브랜드를 활용하여 수출도 한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2013년말 기준 농가인구 534가구, 논밭을 합한 경지면적이 21헥타르에 불과한 과천시조차도 화훼도시의 강점을 살려 ‘이코채’라는 화훼브랜드를 개발하여 대외인지도를 상승시켜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여 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우리 시는 대부포도, 본오으뜸살 등 몇 개의 품목이 경기도 G마크 인증을 받는데 그쳤을 뿐 어떠한 자체

인증 시스템도 갖고 있지 않았으며 최근까지도 그에 대한 계획조차 없었음을 본 의원이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시에도 브랜드화할 농수특산물이 없지 않습니다. 광활하면서도 단일한 곳인 본오뜰에서 생산되는 본오으뜸쌀, 전국적으로 이미 많이 알려진 대부포도, 그랑꼬또와인 및 껌파리소금 등이 대표적이며, 그 밖에도 관심 및 개발여하에 따라 더 많은 우수 농수특산물이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 지역 우수 농수특산물에 대한 우리 시 자체 인증제가 우리 시 농수특산물의 판매경쟁력,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방자치단체의 공신력으로 전국의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고 인지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에게는 로컬푸드라는 인식을 심어주어 지역 농수산물을 더욱 애용하게 만들며, 생산자들에게는 시에서 인증된 상품을 생산한다는 자긍심을 주어 품질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과정의 선순환이 이루어 진다면 예상밖의 놀라운 성과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륙지방에 있는 경북 안동시가 그 지역에서 가공만 하는 간고등어를 ‘안동간고등어’라는 전국적 브랜드화에 성공시켜 연간 100억원의 생산 및 그에 따른 일자리 창출을 하는 등 안동시 지역경제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이런 사례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 농업 생산성 향상에 따른 농산물 공급 과잉이 지속되어 농산물의 자기정체성을 확보하지 않고는 판매가 어려운 지금의 시기를 맞아, 농수특산물에 대한 우리 시 자체의 품질 등에 대한 인증제 다시 말하면 지역 통합상표의 사용은 지역 농수특산물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더 늦출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및 특산물 전반에 대한 자체 인증제를 조속히 도입하기를 촉구하고, 그 출발점으로서 농산물 분야에 대해서는 우선 연내에 시행할 촉구합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며 어떠한 방침과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본 의원이 질문드릴 사항은 시내에서 멀리 떨어져 사는 외곽지역의 안산시민도 현대 서민생활에 필수인 도시가스 상수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시가 적극적인 지원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2014년도 기준 98.1%로 수도권

중에서도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도 아직 도시가스 공급되지 않은 지역이 산재해 있습니다. 약 3천9백5십세대가 거주하는 대부도를 제외하고도, 9개동 15개소 약 450세대에 도시가스 공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팔곡 일동 선학길·남산평길, 건전동 삼천리, 사사동 안골에 있는 100세대가 넘는 가구에도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아 본 의원은 그 어려운 실상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취사할 것이 많은 농촌임에도 도시가스 공급이 되지 않아 부득이 LPG가스통을 사용할 수 밖에 없어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마저도 도시가스 사용 일반화에 따라 LPG가스배달업체가 줄어 들어 배달비용도 증가하고, 제때에 배달받지 못하여 바쁜 농촌 생활에서 제때 취사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구가 적고 도시가스 공급지역과 거리가 멀어 경제성이 없어 도시가스사업자가 공급을 회피하는 지역이고, 설령 공급 결정을 하더라도 수요가 부담 시설분담금이 높아 형편이 좋지 않은 분들이 스스로 공급 결정을 택하기가 어렵습니다. 시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이런 지역에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것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도시가스사업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성이 없어 도시가스사업자가 공급을 거부할 수 있는 일정 조건의 지역에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지역에 설치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우리 시 조례도 의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위의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조속히 도시가스가 들어오게 하는 것은 우리 시의 정책적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은 경제적으로도 소외된 사람이 많은 지역입니다. 경제성 논리, 예산절감의 차원에서 접근할 사항이 아니라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 설치에 있어 최대한 국·도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되, 한계가 있을 경우 비록 적지 않은 재원이 소요되더라도 과감하게 시 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의 애로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어 상수도 미공급 지역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상수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이 존재하는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요즘 세상에 상수도가 안들어가는 곳이 안산시에 어디 있겠느냐고 의아해 할 지도 모르겠으나, 본 의원의 지역구인 건전동 삼천리마을 일부 세대인 약 15세대에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안산시 외곽지역 군데군데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소규모 부락이 있을 것입니다.

상수도가 없는 생활의 불편이라는 것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경우와 같이 다소 경비가 많이 투입되더라도 이들 세대에 상수도관 설치 지원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들 중 많은 이들이 주거, 에너지 등 여러 부분에서 취약한 분들이어서 지원이 필요하고, 이들이 살고 있는 곳의 생활여건도 개선이 되어야 우리 시민의 거주지 다변화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및 상수도 미공급 지역 지원에 대한 본 의원의 견해를 표명하였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과 방침은 어떠한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 쌀에 대한 소비촉진책에 대해 제안 및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시청 및 각 구청 구내식당에서 급식을 운영하면서 우리 지역 쌀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 그 주된 이유는 현재 식당에서 사용하고 있는 쌀 보다 우리 지역 쌀의 가격이 비싸 우리 지역 쌀을 사용하고서는 현재의 급식단가를 맞추기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본오으뜸쌀로 대표되는 우리 지역 쌀이 시청, 구청 구내식당에서 사용하는 현재의 쌀보다 비싼 이유는 그 만큼 품질이 우수하기 때문입니다. 안산 지역 쌀 중 하나인 본오으뜸쌀의 예를 들면, 이미 경기도 G마크를 획득한 상품이고 우리 지역 및 인근에서 상당한 브랜드 인지도가 있는 상품입니다.

우리 시 시청 및 구청에서는 구내식당 급식업체에 임대료 면제, 각종 집기지원 등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좋은 조건으로 운영되는 급식업체와 우리 시가 잘 상의한다면 품질 좋은 우리 지역 쌀이 우리 시 시청, 구청 구내식당에서 사용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현재의 급식단가를 조금 인상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 우리 시 공무원들도 그리 큰 부담을 지지 않으면서도 품질 좋은 우리 지역 쌀을 먹을 수 있어 오히려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역농협에 알아본 바로, 판매되지 않아 묵고 있는 우리 지역 쌀의 재고량이 상당합니다. 우리 시에서 이미 품질이 인증된 우리 지역쌀을 외면하고서야 어떻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외칠 수 있습니까? 우리 시가, 우리 시 공무원들이 지역 생산품 애용에 앞장서야 합니다.

시에서 앞장 서 우리 쌀을 알리고 애용하면 산하기관이나 관련
유관기관 및 지역기업 등에도 파급효과가 있어 이 사항은 매우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역경제활성화 한다고 거창
하게 떠들것이 아니라 이런 구체적인 사안에서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을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거듭 우리 시가 우리 안산 쌀의 소비촉진에 적극 나서길 촉구하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어서 윤 태천 의원님, 주 미희 의원님, 전 준호 의원님
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 그럼 윤 태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수·축산물 및
특산물에 대한 자체인증 지역 통합 브랜드 도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문 요지 >

○ 농·수·축산물 및 특산물에 대한 자체인증 지역 통합브랜드
도입과 관련하여

-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및
특산물 전반에 대한 자체 인증제를 조속히 도입하기를
바라며 그 출발점으로서 농산물 분야에 대해서는 우선
연내에 촉구하며

-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며 어떠한
방침과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 바람

○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 농업 생산성 향상 등으로
농산물 공급 과잉이 지속되면서 농산물 시장의
주도권이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되고,
농산물도 생필품 개념에서 선택하는 상품으로 그
개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 이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지사 인증 G마크 통합브랜드를 비롯하여 20여개 시군에서 각기 행정 또는 민간 주도하에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는 포도·시설채소류(방울토마토 등)·표고버섯 약 30ha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포도·시설채소류는 약 50ha가 GAP(우수농산물관리)인증을 받아 재배하고 있으며, 대부포도와 안산쌀은 경기도지사 G마크 통합 인증을 획득하여 우리시 농산물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널리 홍보해 오고 있습니다.
- 더불어 우리시는 'YTN' 과 (주)콜피아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지역특산물 판매 활성화 사업 제안을 적극 검토하여 대부 그랑꼬또 와인 등 우리시를 대표하는 농산물의 우수성 홍보와 판매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겠으며, 또한 시 홈페이지와 관광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최근 농산물 유통 트렌드가 시장차별화 수단으로 농산물 브랜드화가 대두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시에서도 재배규모와 시장지배력이 큰 대부포도를 비롯하여 반월·신길지역의 쌀과 대추(방울)토마토, 오이, 상추 등 시설채소류 품목, 그리고 대부도 김과 풍도 꽃게 등에 대하여 자체 인증 기준을 마련하여 우수 농수산물에 대한 인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자체 인증제를 도입하게 되면 우선 우리시의 특성에 맞는 인증기준을 도입하여, 전체를 아우르면서도 하향평준화가 아닌 가치 상승을 위한 방안과 우리시만의 차별화된 특성을 살려 고객 만족과 소비자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선, 우수농산물 인증을 받기를 희망하는 생산자(단체)의 인증 신청을 받아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으로,
- 인증농산물에 대하여는 안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에 의거 금년도 12월말 까지 우리시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우리시 브랜드를 달고 출하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품질 및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자체인증제는 우리 행정만의 의지로는 성공하기가 매우 어렵고 생산자의 주도하에 관내 유통업체 및 시민의 목소리를 한데 모아 시장인증이 단순한 안산시 마크를 부착하여 판매하는 것에 그치지 않도록 유기적인 상생의 방안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인증제 도입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두 번째로 질의하신 “도시가스 및 상수도 미공급 지역 문제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질문 요지 >

-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문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 도심 외곽지역 9개동 15개소 약 450세대 도시가스 미공급 상태
- 건건동 삼천리마을 등 100세대가 넘는 가구 도시가스 미공급으로 주민불편

-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있는바와 같이 안산시 도시가스 보급률은 98.1%로 수도권에서 높은 편이며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으로는 대부도를 제외한 삼천리마을 등 15개 마을 450여 세대에 해당됩니다.
- 우리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은 도심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나 수익성이 없어 사업자가 공급을 기피함에 따라

-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빠른 기간 내에 도시가스 공급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금번 제221회 안산시 의회에 상정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 그동안 경기도 도시가스 의무적투자비를 이용하여 해마다 3억원 규모의 도시가스시설을 설치 지원하였고 올해에도 신길거모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구간 및 건건동, 신길동 일부지역에 공급관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우리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는 3억원 정도 지원되는 경기도 도시가스 의무적투자비로는 한계가 있어,
- 금년도에는 화정동 꽃우물지역에 도비 10억원을 교부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너비울마을은 2016년도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국비 3억원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 우리시에서는 도시가스 미공급으로 인한 연료비 부담 등 불편을 겪고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우선 도시

계획도로 개설 예정지역을 중심으로 3~4개 마을씩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안산시 전지역이 도시가스
미공급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전동 삼천리마을, 팔
곡일동 선학길, 남산평길 등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서는 약 30억원 이상 사업비가 소요되나 전액 시비
로는 우리시 재정 여건상 어려운 실정임으로 2016
년도에 국도비 확보를 통하여 적극 추진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 상수도 미공급 지역 질문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
자면, 안산시 주민 모두가 깨끗한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입니다.
- 그러나 외곽지역의 경우 사유지에 상수도관 매설을
토지 소유자가 동의하지 않는 등의 문제 점으로
인하여 아직까지 지하수 등을 이용하는 세대가 일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삼천리 마을은 상수도 공급 요청은 없었으나, 해당 마을을 포함하여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상수도관 설치가 가능한 지역에 대하여는 수돗물 공급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우리지역 쌀 소비촉진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 발언 요지 > —

- 우리 지역 쌀 소비 촉진 방안

- 시청 및 구청 등 구내식당 급식에 지역쌀인 본오으뜸쌀이 비싸다는 이유로 이용하지 않고 있음. G마크를 획득한 품질이 우수하고 브랜드 인지도가 있는 만큼 임대료 면제 등 구내식당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에서 시와 잘 상의하여 사용토록하면 좋을 것 같음. 이와 더불어 급식단가 인상을 통해서라도 공무원들이 우리 지역 쌀을 이용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임.

- 먼저, 우리시 관내 벼 재배현황을 말씀드리면 804ha로 본오동 지역을 포함한 관내 농촌지역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지난해 3천698톤의 쌀을 생산하였습니다.

- 우리시 쌀 소비 유통경로를 살펴보면 농협 출하가 1,448톤으로 39.2%, 학교급식이 1,762톤으로 47.6%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가소비와 기타 488톤에 13.2%의 유통경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오으뜸쌀 등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은 경기도 G마크를 획득한 고품질의 쌀로 우리시 농산물의 대표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쌀소비량이 연간 65.1kg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추세여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 앞서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시청 등 관공서 구내 식당의 우리시 쌀 이용율이 전무한 부문에 대해서는 추청쌀 외 본오으뜸쌀이 질이 우수하고 품질이 좋아 다른 지역 지방쌀보다 다소 비싸다는 점이 선정에 어려움이 있기는 하나,

- 우리 지역농산물 소비의 상징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애용함으로써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 우선, 지역농협과 업체 간 가격조정 등 자율협약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용가능 여부를 검토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구내식당 운영은 직원들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 본오 으뜸쌀 등 양질미를 사용할 경우 식대인상 요인이 있어, 이에 대한 직원 의견수렴과 위탁업체와 협의를 통하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이 외에도 쌀 소비 촉진을 위해 막걸리 주류 및 떡가공협회 등 가공업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로 소비촉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윤 태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